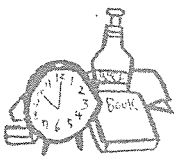
"건강"에서 "건강소식"까지, 국민 건강과 함께 한 시간

건강소식 200호가 있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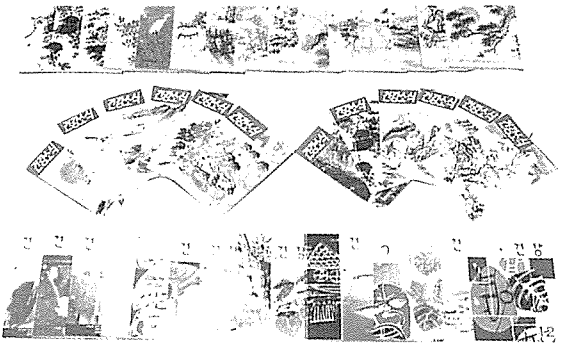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민 건강의식 계몽을 위해 최초로 월간지 형태의 책자를 발간한 것은, 우리 나라 기생충관리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반부터 였다. 각종 기생충의 위해와 예방법, 청결한 생활의 필요성 등을 비롯해 각종 건강정보의 보다 체계적 전달의 중요성을 절감한 건협은 1973년 8월 마침내 "건강"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당시 보건의료 정보지로서는 모범적 인쇄물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건강"은 국민 건강의식 계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건강"은 협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담당 편집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통권 38호(1976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당시 국내 사정으로는 전문 편집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월간지의 발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협회 내부에 부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을 통한 국민보건의식 향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협회 대내외적 홍보 잡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건협은 "건강"지와 같은 월간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의 복간 형식으로 새롭게 창간된 것이 바로 "건강소식"이다. 처음에는 "건강"이라는 제호를 그대로 계승하려 했으나 당시 문공부의 방침이 일단 발행되었다 폐간된 잡지의 제호는 다시 부활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건강소식"이라는 제호를 다시 정하게 된 것이다.

1977년 7, 8월호를 시작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건강소식"은



통권 15호 이후인 1980년부터 발전적 전환을 이룩하여 월간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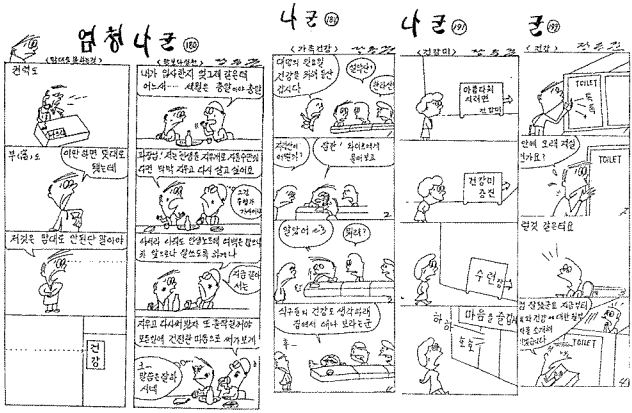
창간 이후 건강소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건·건강 상식 전달에 최선을 다해 왔다. 건강소식은 특히 기생충질환 예방계몽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어 기생충 감염률의 현저한 저하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나라 국민 건강 상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비롯하여 규칙적인 건강생활의 필요성, 건강 운동법, 건강을 위한 식생활법 등 더욱 다양한 건강 상식을 다룸으로써 국민 건강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창간 이후 건강소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건·건강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해 왔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의 건강비결, 권두언과 각종 문화, 취미, 오락에 관한 기사도 골고루 다룸으로써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다양한 내용의 수록을 통해 종합생활정보잡지로서의 성격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자투고란을 마련하여, 독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유발하는데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하며, 협회 내적·외적 건강관련 행사 등의 소식을 게재하여 관심있는 관계자간의 정보 교환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

건강소식은 또한 편집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즉 창간 당시 국판의 판형에 표지를 포함하여 64면으로 표지를 제외한 모든 지면이 갱지에 단색이었던 건강소식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 발행면수 68면에 지질은 모조지, 2도 페이지(8P) 신설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1992년 4월호부터는 발행면수를 84면으로 대폭 증면하였다. 또한 원색 페이지(8P)를 신설하고 2도 페이지(16



P)도 증면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창간호 발간 이후 18년여 동안 한호도 결간없이, 월 2만5천여부씩 년 30만여부씩 발행된 건강소식은 지금까지 전국의 보건소・지소, 의료보험조합, 각급학교, 일반주민, 특별회원, 사업장 등에 무료로 배부되어 왔으며, 독자들로부터 살아있는 건강정보 전달지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건강소식은 시의에 맞는 건강정보와 대내외 관련 소식을 게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시기에 맞는 건강정보지로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질병의 변천, 건협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다.

한편 건강소식의 역사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연재만화 "엄청나군"의 역사이다. 건강소식의 창간호부터 시작해서 200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군 역시 단 한호도 거르지 않고 게재되어 우리 나라 건강관리 역사와 협회의 역사를 8칸씩의 만화에 담아 오고 있다.

그러나, 건강소식은 내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판형의 변화나 지면의 증가, 보다 세련된 편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앞으로 협회 내적인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관심있는 분들의 아낌없는 충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변화・발전을 추구하는 자세로 건강소식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생활과 항상 함께 하는 건강 계몽 잡지로 존재할 것이다.

건강소식의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연재만화 "엄청나군"의 역사이다.